호남발 '安風' PK에도 상륙할까

국민의당 오늘 3차 경선
호남권 높은 관심에 '고무'
투표 독려 등 분위기 고조
"전국 지지층 결집" 기대감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역 국민의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왼쪽부터), 박주선 국회부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호남지역 경선에서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국민의당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높은 참여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흥행 탄력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호남발 '안풍'(安風)이 전국적으로 국민의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쟁 구도가 안철수 전 대표의 '독주' 양상이 펼쳐지면서 경선 열기가 누그러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지난 주말 호남에서 분출된 경선 참여 열기가 28일 영남(부산·울산·경남) 경선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경선 흥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남지역에서도 투표 참여 열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27일 "호남에서의 흥행 성공으로 했으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투표를 독려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호남발 열풍이 충분히 타 지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독주 양상으로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선 분위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영남이 상대적 취약 지역이고 평일에 경선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참여한다면 성공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호남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투표를 호소하는 등 최소 1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안철수·손학규·박주선 세 후보의 '아름다운 경쟁'을 독려, 함께 승리하는 경선을 실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단일대오 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박지원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선두주자인 안 후보에게 더 겸손하게 두 후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 캠프는 압도적 차이로 호남을 석권함에 따라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기 승부'라는 애초 시나리오대로 경선이 진행됨에 따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한층 여유가 생긴 모습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캠프의 당 내외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데다 일부 캠프 인사들은 오만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과감한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 전 대표 진영에서 당의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중진들과 협의하고 초선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 호남 압승에 '비문단일화' 물 건너가나

'자강론' 힘 받을 듯…지지율 상승 못하면 단일화 압박 클 듯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비문(비문재인) 후보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25~26일 잇따라 열린 광주·전남·제주, 전북 등 1~2차 순회 경선에서 총 64.60%를 얻으면서 제2의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세가 이어진다면 남은 경선에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안 전 대표가 '문재인 대항마'로서의 자신감을 키울수록 비문 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이다.

안 전 대표는 경선 돌입 전에도 비문 단일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만나 연대 문제를 얘기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연대론에 대해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특정인 반대를 위한 연대에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경선 압승이 현실화된다면 안 전 대표의 이른바 '자강론'은 더욱 강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1위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를 위한 비문 단일화의 거센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점이 변수다.

이미 손학규, 박주선 후보는 대선에서의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동철·유성엽·황주홍 의원도 지난 23일 "안 전 대표의 자강론과 연대불가론, 그리고 국민의당 단독 집권론은 야권의 분열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레이스 막판, 안 전 대표가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한 비문 단일화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보수 세력과의 산술적 연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혁 조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바른정당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비문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이 끝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며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4월 15일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정부 인수위 45일간 설치 공감대

5당 원내대표 회동…세월호 피해보상 연장 방안 등 논의

정치권의 5개 주요 정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을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5당 원내대표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오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법사위 참석이 어려워 29일 법사위 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30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권고하기로 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가 됐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손학규·박주선 "경선 완주"

孫 24.63%·朴 11.92%…성적 저조에도 "포기 없다"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의부장이 '안풍'(安風·안철수 바람) 속에서도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은 호남에서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전을 장담했지만 안풍에 가로막히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다.

안 전 대표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64.6%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대세론을 형성한 반면, 손 전 대표는 24.63%,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1.92%에 그쳤다. 하지만 손 전 대표는 중도 포기는 없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역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남에 이어 수도권에서 승리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도 호남에서의 부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박 부의장은 27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선 완주로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 경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 관계자는 "세 후보가 완주한다면 모두 함께 승리하는 경선이 될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단일대오 형성에 근간이 될 것"이라며 "뒤지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손학규, 박주선 예비 후보의 모습에 마음 한 켠이 뭉클해진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금남로서 '광주 비전' 발표

오늘부터 1박2일 일정 방문…민주의 집 방문·조선대 특강 등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박2일 일정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다.

심 대표는 광주 방문 첫날인 28일 오후 1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광주 비전'을 발표한다.

이어 옛 전남도청 원형보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농성장과 민주의집을 방문하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과 정치의 협연'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한다.

이후 광주개인택시 조합원, 탈핵 환경운동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승리 전진대회'에서 심 대표는 "심상정은 장관하러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하러 나왔다"며 "진정으로 과감한 개혁을 원한다면 개혁의 적임자인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은 야권후보의 정책과 인물경쟁으로 치뤄질 질 것"이라며 "심 후보는 오랜 정치 경험과 발군의 정책능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있는 선거를 치룰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종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종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